

8. 상처 받기를 선택할 것인가? vs 혜택 받기를 선택할 것인가? / 엄태호 목사

본문	사도행전 14:1-10	주제/사건	박해당하는 바울 / 상처와 트라우마가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라
문제제기	<p>1.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 받지 않은 것처럼?</p> <p>2. 거절의 아픔, 실연도, 대학 떨어지는 것도, 취업 실패한 것도, 이혼도, 사업 실패도 거절감의 경험이다.</p> <p>3. 나를 거절하고 상처 주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가?</p>		
설교	<p>1. 실패와 거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패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나 거절은 인격에 관한 것으로 상처가 심하다. - 거절당하면 소극적이 되고, 관계의 어려움도 생긴다. <p>2. 내가 사랑을 선택했다는 말은 상처 받기를 선택했다는 말과 똑같다.</p> <p>3. 상처를 안 받는 방법 : 거리감 두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에서도 헌신하지 않으면 상처 받을 일도 없다. - 그러나 거리감을 두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p>4. 거절감을 경험하신 예수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 1:11) - 자식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은 부모다.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자식은 몰라 준다. -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상처 입을 각오를 하셨다는 것이다. <p>5. 상처 받기를 선택할 것인가? vs 혜택 받기를 선택할 것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에서 상처 받아서 떠난다고 하는 이들, 더 좋은 교회로 간다. - 혜택 받기를 선택하면 멎이 없고 아름다움이 없다. - 예수 믿는 것은 상처를 감수하고 기뻐하며 기꺼이 누릴 줄 아는 것이다. - 상처 받기를 선택하면 멎있어지고 아름다워진다. (좁은 길) -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은 상처 받기를 선택한 것이다. <p>6. 박해 속에서 사도 바울의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행 14: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래 있어” :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직면한다. 2) “주를 힘입어” :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했다. 3) “담대히 말하니” : 끝까지 복음전도 사명의 자리를 지켰다. <p>7.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p> <p>“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12-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혜는 물에 생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 - 건성피부에 로션 바르면 촉촉해져서 자국이 잘 안 나는 것처럼, 은혜는 우리 마음을 관대하고 넉넉하게 해 준다. - 일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 백 데나리온 빛진 자를 용납해 주어야 한다. - 예배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은혜의 자리이다. <p>2)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롬(평강) :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각자 제기능을 발휘하는 상태 - 팽이가 잘 돌아가는 상태가 평강이고, 기계가 잘 작동하는 상태가 평강이다. -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킬 때 주어진다. - 착개오는 자신을 용납해주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 		

박해를 피해 도망하지 않았더라면. . .

사도행전 14:1-10

- 1)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밀더라
- 2)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 3)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 4)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 5)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괄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 6)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모니아의 두 성 르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 7)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 8) 르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걸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 9)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발을만한 밀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 10)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는지라

두 개의 다른 ‘사명’의 자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흥미로운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일어난 두 번의 소동가운데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하나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 두 사도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한 것입니다.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성경을 읽다보니 NIV에는 ‘오래 있어’라는 말이 ‘considerable time’이라고 되어 있고, 메시지 성경에는 ‘a long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나타난 사역의 열매를 증거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박해의 자리가 두 사도에게 ‘사명의 자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성공적인 사역의 결과로 인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은 아

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보세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참 놀랍죠?

복음의 역사를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사도들을 따르는 자기 있는가하면, 사도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하는 자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할지, 또 다시 선택해야 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사명의 자리는 다른 선택으로 만들어 집니다. 본문 6-7절은 두 사도의 아주 다른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주가오니아의 두 성 류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자리를 지키며 빛나는 결과를 만들어 낸 두 사도가 왜 도망했을까요? 두 가지 다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다른 선택에도 불과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8-10절.

류스드라에 밭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걸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밭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밭을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는지라

여기에서 우리의 의문은 이렇습니다.

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조금 부정적인 의문을 이야기 하자면, 그렇게 담대했던 두 사도가 왜 그렇게 비겁한 사람들로 변해 버렸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둘 다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박해를 견딘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도망하여 피난 한 ‘류스드라’와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 했다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적어도 사도바울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가 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이런 가정이 가능합니다.

종종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신앙의 오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경험을 의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지만,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에게 있어서 사도바울이 박해의 자리를 지킨 것도 믿음의 결단이요,

다음 박해의 순간에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간 곳도 사명의 자리였다고 말입니다.

사도바울이 박해의 자리를 피해 도망간 곳 루스트라와 더베에서 시종여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루스트라와 더베는 당시 로마세계에서 그렇게 특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긴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신한 임시 피난처라고 생각할지 모를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관리들까지 끌어들여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 도시로 도망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살피다보면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고백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 곳에서 선천적으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치유되었다는 사실보다, 영적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루스트라를 방문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인해 신약성경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루스트라로 피난하지 않았다면 교회를 돌보기 위해 2차 전도여행 때 그곳을 방문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니 말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 불리는 성경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유익한 말씀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디모데후서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처형 직전에 데모데에게 보낸 사도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바울 신앙의 마지막 고백이 담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가운데 ‘선택의 순간’은 이런 것입니다.

만일 사도바울이 두 번째 박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박해의 자리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조금은 더 현명한,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 VS. 하나님의 계획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신이 참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옳음’이라는 것이 참 단편적인 생각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도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신앙인들이 쉽게 단정해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박해의 자리를 피해 도망한 것이 비겁하다거나 변질된 신앙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들을 묵상했습니다. 또한 그의 피흘림으로 인해 흘어진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용기라는 생각에 그가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팁박의 자리에서 순교의 자리를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순교’를 숭배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자에 물려죽고, 불에 타 죽는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죽어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그 믿음을 사모하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초대교인들이 흄모했던 것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부러 로마군인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백하고 순교의 자리를 맞이한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로마제국은 더 이상 순교자를 만들기보다는 ‘배교자’를 만드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죽이는 것보다 배신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를 몰락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모든 순교자들을 믿음의 영웅이라 칭하지 않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스런 순교도 있고 인간들의 명예욕으로 얻어지는 불명예스런 순교도 있다니 말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팁박을 피해 루스트라와 더베로 도망했다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다면 팁박을 받으며 순교하므로 영광스런 자리를 차지하며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훨씬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것은 사도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다 결국은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에서,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순교했으니 말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위해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며 도망자의 길을 선택 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상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영광의 자리가 아닌, 수치의 자리에 기꺼이 서려고 했던 위대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박해의 자리를 피해 도망하지 않았더라면 영광스런 이름을 날렸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때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를 때,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좁은 길, 성공이냐? 승리냐? 의 갈림길. . .

지난 해, CGN의 [복음 책방]이라는 프로를 진행하며 처음으로 읽은 책이 ‘천로 역정’ 이었습니다. 존 버니언의 이 책을 읽으면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이 참 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천로역정’이라는 책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천로역정은 신앙의 정도(正道)를 걷는 과정이다”

사도로 불림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엇이 ‘신앙의 정도’였을까요?

부르심을 따라 마땅한 길을 가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편법이나 지름길을 없습니다. 문제는 이 길이 참 좁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좁은 문’에서 ‘선의’와 ‘크리스천’이 대화한 내용입니다.

- 양의 문(좁은 문)의 선의와 크리스천의 대화(P.62)

“저 앞을 보세요. 좁은 길이 이어지는 게 보입니까? 저게 댁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어때요, 마치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반듯하죠? 반드시 저 길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갈림길이나 굽은 길이 나타나면 처음 지나는 이는 길을 잊기 십상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샛길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하나같이 굽고 널찍합니다. 그게 바로 바른길과 그릇된 길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바른길은 늘 곧고 좁습니다.”

왜 사도바울에게 박해를 피해 도망하는 것이 좁은 길이었을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사도바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좁은 길이 내면의 욕망을 뿌리치며 가는 길이라면, 쉽고 넓은 길이란 내면의 욕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사도바울은 스스로 ‘변절자’라는 무거운 올무를 벗어버리려고 무던히 애쓰던 사람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을 팝박하던 자에서 전도자가 되어 유대교의 변절자로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 의해 돌아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기도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변절자였지만, 여전히 사도바울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로 인해 ‘박해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의 편지를 보면, 늘 ‘사도 된 나 사도바울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강박관념과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는 아물기 전까지 조금만 건드려도 쓰리고 아픈 것이죠. 살짝 딱지가 앓았어도 조금만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피가 나니 말입니다.

사실 사도바울에게 찾아온 박해는 그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사도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박해를 피해 도망간다는 것이 사도바울에게는 훨씬 더 좁은 길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명 앞에 순종하고 ‘이고니온’을 떠난 사도바울의 결단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이나 ‘승리’냐를 결정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은 아더 밀러의 작품으로 알려진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성공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승리를 추구할 것이냐?’ 하는 물음입니다.

‘성공과 승리’라는 말이 얼핏 생각하면 동일한 것 같지만, 아주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윌리 노만이라는 성공적인 세일즈맨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세상적인 가치와 평가로 볼 때,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산 것 같지만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과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 둘의 차이를 세상적 관점과 신앙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사도바울의 선택과 연결 지어 본다면 이런 것이죠.

성공적인 삶을 위해 내려야 하는 선택과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내려야 하는 결단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성공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라면,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열매 맺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는 종종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 * 우리 속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복병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 * 또한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 또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 막지 않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은 유혹은 늘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 할 때 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